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김연지	학번	████████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5. 1. 18(일) ~ 2. 8(일)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규모는 컬리지라 크지는 않은데 시설은 좋다. 시설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많고 불편한점은 없었다. 아시아인이 거의 30~40%정도 되는 것 같아서 카페테리아에서 밥먹을때도 크게 눈치보이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위치도 Skytrain(지하철같은 것)이 가까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다.
수업	기본적으로 다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처음 영어를 접할 때 듣는 기본적인 회화, 캐나다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무엇보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강사님께서 친근한 분위기로 학생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느리게 말해도 끝까지 들어주셨다. 과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다. 제일 어려웠던 과제가 홈스테이 가족에게 인터뷰해오는 정도였다. 다만 주중에 3pm 까지 수업을 듣는게 조금 힘들었던적은 있었다. 아무래도 3주라는 기간이 짧고 하루하루가 아깝기 때문에 매일 돌아다녔는데 다음날이면 또 9시에 수업을 가야되서 6시 30분(아침)에 일어나야되는게 부담스러웠다. 그렇지만 수업이 있었기에 영어에 대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었던것 같다. 다음번에 가시는 분들은 체력을 단단히 쌓아놓고 가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 우리때는 분반을 안하고 15명 다같이 한 수업을 들었다. 수업을 어렵지않고 재밌다. 수업에 대한 부담은 안가지셔도 될듯하다.
Activity	학교에서 준 스케줄표에 있는 Activity는 추가비용이 따로 들지않았고 후에 홈스테이 집에 돌아가는 교통비정도 들었다.  -Curling: 직접 컬링을 해볼수 있는곳이다. 컬링장이 조금 추우니까 옷을

	<p>따뜻하게 입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p> <p>-밴쿠버박물관 : 밴쿠버의 역사를 알수있는곳이다.</p> <p>-Granville Island: 예쁘고 아기자기한 곳이다. Public market에 맛있는 것이 많으니 여윳돈을 가져가 사먹는 것을 추천한다.</p> <p>-밴쿠버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이다. 보통의 물고기도 볼 수 있고 돌고래 해달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앵무새, 나무늘보, 악어도 볼 수 있다.</p> <p>-Grouse Mountain: snowshoeing이 취소되서 대신가게 된 그로우스마운틴. 케이블카를 타고 한 8분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한다. (직접 등산하는거 아니다!) 아래에는 비가 왔는데 정상에 도착하니 눈이 엄청많이 와서 신기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빌려서 탈수도 있다 (비용은 C\$8) ,또 그로우스 마운틴에 관한 영화도 상영한다.</p> <p> 개인적으로 간 Activity 종류와 비용을 나열하겠다.</p> <p>-Capilano Suspension Bridge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 : C\$32.95 (어른요금) + &lt;갈 때 교통수단은 프리셔틀버스 타시면됩니다&gt;</p> <p>-밴쿠버 Lookout (밴쿠버 하버타워 전망대): C\$ 15.75(어른요금) + &lt;밴쿠버 다운타운에 있어서 찾아가기 쉽습니다&gt;</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당시에 한국은 영하의 온도로 매우 추웠는데 밴쿠버는 영상 4~10도로 매우 온화한 날씨였다. 집에서 챙겨간 잠바를 입기에는 부담스러웠다. 또 비가 자주온다. 우산을 꼭 챙겨가야한다.
안전	나의 홈스테이 가족이 밴쿠버는 매우 안전하다고 말할만큼 안전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마약같은것에 개방된 나라라 밤늦게 차이나타운에 가면 위험하다. 또한 밤늦게까지 놀지않고 8시정도에 집에 귀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숙소	나는 홈스테이에 매우 만족한다. 보통 홈스테이 하면 생각나는 부부와 3명의 귀여운 딸이 있었다. 집도 매우 깨끗하고 좋았고 나에게 1층을 다쓰라고 해서 편하게 생활했다. 화장실도 개인용으로쓰고 거실도 있고 매우 좋았다. 다만 그 가정은 홈스테이를 아기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려는 목적으로 하는것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긴했다. 그렇지만 중간에 김도 사주고 불고기,호떡도 같이 만들면서 서로 재밌게 생활했던것같다.

식사	<p>학교식당( 0 ) 홈스테이 ( 0 ) 외부식당 ( 0 )기타( )</p> <p>확실히 밴쿠버는 물가가 비싸다. Tax가 정말 12~13% 붙어서 무엇을 사먹으려고 해도 부담스럽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홈스테이에서 제공하지만 저녁은 주로 밖에서 먹었다. 한번 밖에서 먹을때마다 C\$15정도는 쓴다. 그렇지만 맛집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것도 좋다.</p> <p>홈스테이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 확실히 영어로 말할 기회가 많고 친해질 수 있다.</p>
교통	<p>나는 King Edward역(Skytrain)이 집근처라 2정거장만 가면 랑가라컬리지였고 또 반대방향으로 3정거장만가면 다운타운이었다. 교통도 매우 편리했다.</p> <p>버스티켓을 한번 끊으면 90분동안 스카이트레인이나 버스를 무료환승할 수 있다. 다만 티켓요금이 조금 비싸다. 거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장 싼 티켓비용이 C\$2.75이다. 학교에서 버스티켓을 주지만 개인적으로 놀러갈 때마다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 랑가라컬리지 안에 북스토어에서 C\$2.75짜리 10개 묶음을 C\$21에 판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347,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약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50,000원	
기념품비	150,000원	
옷,가방,화장품	140,000원	
교통비	80,000원	
개인적인 Acitivity 비용(입장료)	50,000원	
합계	2,077,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p>비행시간이 10시간~12시간정도 된다. 정말 비행기안은 건조하고 답답하니 편한 차림으로 오는 것을 추천한다. 3주가 짧지만 길기도 하다. 한국음식(라면)같은 것을 챙겨와서 그리울 때 마다 먹는것도 좋다. 그리고 영어회화공부를 어느정도 해가는 것이 좋다. 갑자기 주변환경이 모두 영어로 바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미리 회화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p>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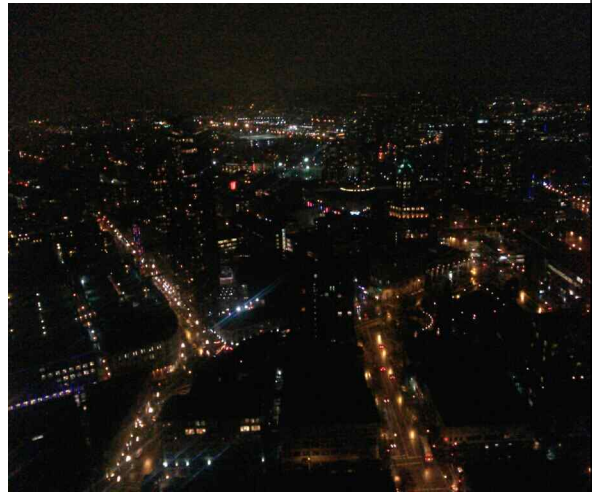
홈스테이를 통해 좋은 가족을 만나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에 돌아오니 3주동안 캐나다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 정도로 매우 여유롭고 즐거운 곳이다. 캐나다에 가기 전에 '영어'가 단순히 하나의 과목으로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실제로 영어권 나라에 갔다와 보니 영어가 정말 중요한 언어이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스피킹을 잘못하는데 짧은기간이지만 조금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전에는 단순히 단어로 대화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대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언어'를 배우고자 할 때 언어의 본고장에 가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모로 감사하고 재밌는 체험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컬링</p>	<p>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p>



밴쿠버 아트갤러리에서 홈스테이가족과



밴쿠버 하버센터타워 lookout 야경



그랜빌아일랜드 앞에서



잉글리쉬 베이 앞 캐나다 국기